

농림수산식품부

FAO 제30차 아태 지역총회 유치 성공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차관은 지난 3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 29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차기 회의의 국내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참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FAO내 11위 공여국으로서 국가위상과 역내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2006년과 2008년에 28, 29차 회의의 국내 유치를 각각 추진했으나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밀려 실패한 바 있다.

동 회의의 국내 개최시 46개 회원국 각료를 포함한 관료, 식량전문가, 학자 등 300여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농업)가 WTO, FTA 등 대외 환경변화에 취했던 방어적인 자세를 반전시키는데 필요한 공조세력 확보와 리더십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식량 위기, 가난 및 기아 극복, 국경초월 동물질병 대응, 교역 지원 등의 분야에 회원국간 긴밀한 협조와 국제기구 역할 강화가 강조될 예정이다.

한·미 FTA 비준 대비 농어업 부문 추가보완대책 마련 중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범정부적인 논의를 통해 2007년 11월, 농업분야 20.4조원, 수산분야 0.7조원의 한·미 FTA 보완대책(2008~2017)을 확정했다.

또한 새정부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축산업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대책을 보완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국회 및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검토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러한 방향을 작년 12월에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대책내용과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농어업인 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한·미 FTA 보완대책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

1/4분기 가축동향조사결과 발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4분기 가축동향조사결과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전 축종의 사육마리수가 전 분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지난 3월 사육마리수는 248만1,000마리로 전분기보다 5만1,000마리(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수입 감소, 산지 가격 하락 진정추세,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보다 24만마리,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젓소 사육마리수는 44만8,000마리로 지난 2002년 원유생산조절제 추진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이나 최근 젓소 및 송아지 가격 하락세로 출하를 늦추고 관망하는 농가와 규모화 등으로 전분기보다 2,000마리(0.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사육마리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가격 호조, 규모화 추세 등으로 전분기 보다 9만마리(1.0%) 증가한 917만7,000마리로 이는 전년동기보다 19만6,000마리(2.2%) 증가한 수치다.

닭의 경우 육계 사육마리수는 6,869만4,000마리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국내산 소비 증가, 봄·여름 성수기의 계절적 요인, 가격호조 등으로 입식을 늘려 전분기보다 무려 1,421만5,000마리(26.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 사육가구수는 3,650가구로 전분기보다 454가구(14.2%) 증가, 전년동기보다 28가구(0.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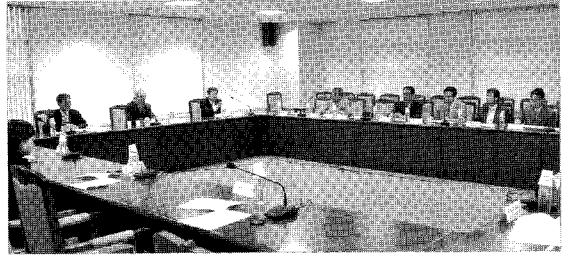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6,023만7,000마리로 지난해 9월 추석 이후 계속된 계란 가격의 호조, 입식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106만9,000마리(1.8%), 전년동기보다 238만7,000마리(4.1%) 각각 증가했다.

가구당 사육마리수는 산란계는 3만4,421마리, 육계는 4만2,247마리이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가금분야 협의체 회의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 동물위생연구



소는 지난 4월 15일 분야별 협의체 가금분야위원장 권준현 조류질병과장) 200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질병피해 최소화 현장연구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분야별 협의체 가금분야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현장애로기술 발굴을 목적으로 2005년 8월에 구성되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 조류질병과가 주관하는 분야별 협의체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난계대 질병 대응연구, 진단기술 개선 및 공급, 가금질병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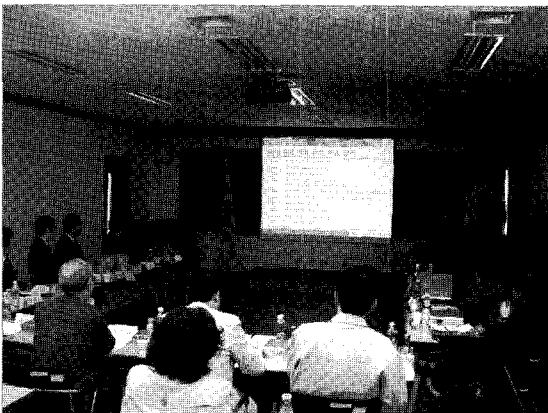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대표적인 난계대 질병인 닭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과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 감염증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 등 주요 가금 질병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질병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존 진단법들을 개선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깔집 재사용 등 농장 계사내 환경위생의 악화가 질병상재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오는 6월 10일 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한국가금질병연구회 주관으로 '백신, 환경 그

리고 질병'을 주제로 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해외전염병분야 협의체 회의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16일 내·외부의 학계, 현장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해외전염병분야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 방역 관련 전문가 및 학계, 내부 질병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국내 유입 위험성이 있는 해외전염병에 대한 검역원의 연구 및 방역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구제역, 광우병, 신종 외래성 질병 등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질병에 대한 국내 예찰, 연구 개발 상황 및 국제공동 연구, 워크숍 개최 계획 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상황이 논의되었다.

위원들은 해외전염병의 특성상 국제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국가(영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기를 당부했다.

조인수 해외전염병과장은 "협의체에서 제안된 사항은 향후 방역 및 연구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검역원은 해외약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동·축산물 검역통계정보 공개 서비스 기능 확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동·축산물 검역통계정보 공개 서비스'의 모든 통계장표에 대한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개발해 지난 4월 10일부터 동·축산물 검역통계정보 공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축산물 검역통계정보 공개 서비스는 검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축산물의 수출입 검역검사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이며 2008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역통계정보 공개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 추출된 통계자료의 화면조회만이 가능했던 것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보를 편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동·축산물 검역통계정보 공개시스템 접속방법은 검역원 홈페이지(<http://nvrqs.go.kr>)에 접속 → 화면상단 NVRQS 업무정보 → 검역검사업무 → 검역검사통계 → 실시간통계 순으로 원하는 통계분류, 품목, 국가, 기간 등의 검색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와 함께하는 국경검역(Q-tour) 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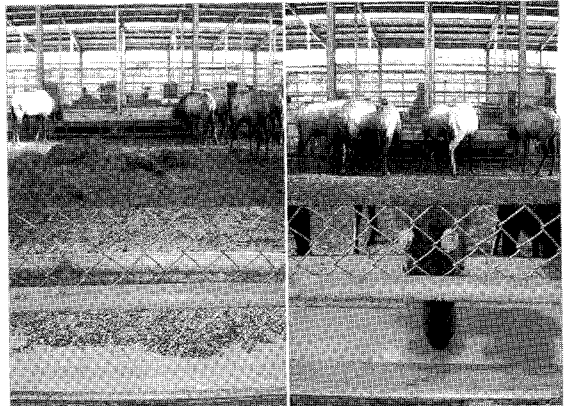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분야 주요 생산자단체 11개 20여명을 초청하여 당면현안인 구제역·시 특별검역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검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해외여행자 불법휴대품 검색상황 등 국경검역 업무 현장을 방문하는 국경검역 투어를 지난 4월 15일 실시했다.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되고, 이들 질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자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생산자단체가 솔선하여 축산농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활동이 절실하다고 검역원은 강조했다.

이번 국경검역 현장투어에서는 올해 국경검역 추진대책 전반에 대한 설명, 입국장 Gate 신발소 독조 운영, 축산물 검색 및 검역탐지견 탐지시연 등을 참관하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취재' 104P 참조).

농촌진흥청

가축 스트레스 줄여 주는 '글루타치온' 대량 생산기술 개발



글루타치온 비급여구

글루타치온 급여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사람과 동물의 체내에서 독성물질의 해독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대량 생산하는 효모 균주를 우리의 전통주에서 선발하고, 이를 활용해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람이 기르는 가축은 사육 환경이 나쁘면 스트레스를 받아 생산성과 번식률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날씨 변화나 이동 등의 주위 환경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감염되거나 실사 등으로 체중이 줄고 축산물의 품질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농촌진흥청은 '글루타치온(Glutathione)' 생산 능력이 우수한 균주를 찾기 위해 전국 65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에서 관련 균주를 조사해 선발했으며, 선발한 균주는 지금까지 '글루타치온' 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균주들에 비



## 가·관·단·체·소·식

해 생산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선발한 '글루타치온'의 첨가 효과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가축을 이용해 시험한 결과, 젖소에 '글루타치온'을 급여한 경우, 우유의 체세포수가 35.5% 감소해 우유의 질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저장성을 크게 높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글루타치온'은 주로 수입품으로 가격이 비싸 양어사로 등 특수한 용도로만 이용되어 왔다. 이번에 선발한 '글루타치온' 생산 미생물을 생균제로 하여 사료첨가제의 형태로 농가에 값싸게 공급하면 가축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글루타치온'의 경우 kg당 60만원이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정제 '글루타치온'은 kg당 30만원으로 절반의 가격이며, '글루타치온'을 함유하고 있는 생균제의 경우 kg당 2,200원으로 축산농가에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 '동물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행사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동물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행사를 국립축산과학원 잔디밭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 돼지, 닭, 오리, 염

소, 개 등 다양한 동물들과의 매개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특히 1박 2일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상근이'와의 포토타임 및 애견 체험행사, 치즈 만들기, 송아지 먹이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동물매개활동이란 사람과 동물과의 상호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달을 촉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이 제한적이며, 1994년 삼성화재에서 안내견 학교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고, 최근 일부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한 정도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07년부터 안내견 등 특수 목적견에 대한 연구를 삼성안내견학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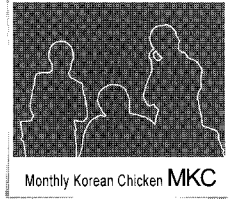
### 국립축산과학원

### 소통과 화합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지난 4월 11일 수원청사내 잔디구장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전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 생활공감형 녹색성장 기술개발 강화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체육행사는 8개 부서가 족구, 피구, 탁구, 발야구, 줄기차 달리기, 줄다리기 등 6개 종목별로 참여하여 부서간·직원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서간 단합과 금년도 녹색기술 개발 강화에 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체육행사에서는 동물유전체과가 종합우승



을 차지했고, 인기상에 기술지원과, 응원상에 동물 바이오공학과, 페어플레이상에 기획조정과, 단합상에 축산물이용과, 그리고 녹색 성장상에는 축산 환경과가 각각 차지했다.

라승용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강증진과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녹색 성장 기술개발을 한 차원 높게 추진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했다.

### 축산물등급판정소

#### 닭고기 등급판정 외식업체까지 확대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4월 1일부터 농협 목우촌 치킨제품인 또래오래치킨에 사용하는 원료닭고기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는 주로 학교급

식에 공급되거나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었으나 소비자들이 손쉽게 먹는 외식용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균일한 품질의 원료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르다는 불평을 받아왔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농협 목우촌 또래오래에서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등급을 통해 품질의 균일성뿐만 아니라 수입육과의 차별성이 홍보되고 다른 외식업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국내 육계산업의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외국 축산물의 수입 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된 1980년 후반 품질고급화와 유통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9년 축산물등급제도를 도입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축산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지난 4월 17일 경기도 군포 소재 본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창립 이후 10년이 등급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고 고급육생산의 필요성을 일깨운 시기라면, 그 이후



## 기·관·단·체·소·식

새로운 10년은 소비자 중심의 제도 정착과 유통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직원 및 사무소 표창, 유통 단계 및 업체 감사패 증정과 동영상 시청, 내빈 축사 그리고 '축산물등급판정사업 20년사' 편찬기념사가 있었다.

창립기념 행사를 계기로 지난 온 20년과 앞으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지표를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운반업 HACCP 1호 지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4월 6일 제1호 축산물운반업 HACCP을 지정했다. 제1호 HACCP 지정 축산물운반업체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우주특수산업(주)(대표이사 최진웅)이다.

축산물운반업은 전국적으로 약 944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동종 업계 최초로 우주특수산업(주)의 제1호 HACCP 지정은 축산물운반업 최초이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의 일원화를 잇는 중간단계라는 점과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 최종 단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주특수산업(주) 최진웅 대표는 "아직까지 축산물운반업 HACCP 지정 받은 곳이 없는 실정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까다롭다고 느꼈으나 깨끗해진 환경에서 지속적인 운영으로 적응하게 되고 유지가 됨으로써 운영진과 종업원들이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운반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기준원은 축산물 운반업 HACCP을 지정받고자 상담 받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어서 추후 HACCP 지정업소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한국가금학회

#### 오는 5월 29일 춘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가 '세계 가금산업의 생산 및 안전성 관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5월 29일 서울대학교 대형강의동(201동 101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미국, 호주, 일본, 유럽,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생산현황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지규만 교수와 서울대학교 김재홍 교수가 좌장으로 심포지엄을 이끌 예정이며, 각 국의 연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관련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통역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각국의 생산동향과 안전성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만큼 세계의 양계 흐름을 파악하는데 양계관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